

SPECIAL
SUNDAY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인들은 다른 교단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세계성찬주일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단이 하나임을 기억하고, 모든 기독교인이 일치와 평화의 정신으로 연합하기 위해 193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가 동참하는 세계성찬주일 특별 헌금은 장학금, 훈련, 멘토링을 통해 전 세계의 우수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세계성찬주일 헌금은 매년 교단적으로 행해지는 여섯 개의 특별 선교헌금 중 하나입니다.

본 예배 자료를 각 교회의 세계성찬주일 예배에 맞게 바꾸어 활용하세요. 아래에 수록된 기도문들은 마가복음 10장과 시편 8편의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함께 제공된 헌금 전 이야기, 어린이 설교 자료, 헌금 전 이야기, 예배 자료를 통해 예배의 모든 부분이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세요. ResourceUMC.org/WCS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여라

최근 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칼 웨슬리 E. 딜로존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https://www.umc.org/en/content/world-communion-sunday-leadership-scholar-pursues-a-medical-degree-wcs>). 필리핀에서 성장하면서 그가 누렸던 “행복하고 단순한 인생”은 연합감리교회 목사였던 아버지의 병환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9살에 나이에 그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선교사역자였던 어머니가 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고, 그의 가정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데도 그는 말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곁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칼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은 발언권이나 선거권도 없었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을 두 팔에 안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은 신성한 가치를 지닌 이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 아이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너희들이 이 아이들처럼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주님과 만났던 어린이 되어서 그들이 세상과 맺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주님과 만나는 아마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목적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경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비전을 갖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서진 세상에서 온전한 존재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던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고 무가치한 존재로,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잊힌 존재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의 팔에 안기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이곳에서 그들이 우러러 보는 어른들에게 그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며 어른들이 함께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의 능력은 절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망과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들의 가치를 형성하고 삶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거절, 험담, 말다툼, 거짓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는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성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고, 그들이 사랑받는 가운데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온전성과 “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여라”하신 말씀에 숨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이 급진적 현대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환영의 정신은 국경과 사회경제적 상황 및 연령을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지원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겪는 불편한 감정과 상황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식탁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소리가 너무 자주 무시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이크를 건네고, 멘토링을 통해 다른 이들을 지도자 위치에 올리면서 은혜의 공간을 만드는 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이들을 세워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세대 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형태를 갖추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찬 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떠한 장벽도, 연령 제한도, 예외조항도 없습니다. 성례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세계성찬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 교회들은 성찬이라는 선물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의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성찬주일 헌금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칼 웨슬리 E. 딜로존이라는 학생을 후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칼의 마음은 그가 필리핀 마닐라의 센트로 에스콜라(Centro Escolar) 대학의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칼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에 큰 빛을 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의료 선교 여행에 참여했

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없었다면 저는 의대에서 공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학금은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16).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 가족들과 동역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예물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됩니다. 그 손은 칼과 같이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들, 생명을 중시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 준비된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